

끓어 있는 우리 법에 명쾌한 비판

《법은 무죄인가》 펴낸 박흥규 교수

법은 무섭다 혹은 더럽다 그것도 아니면 엉터리다. 그래서 법은 두려운 것, 피해야 할 것, 믿지 못할 것, 손해보는 것으로 인식된다. 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법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경원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박흥규 교수(영남대·법학)가 최근 펴낸 《법은 무죄인가》(개마고원)는 이 안타깝고 외로운 우리나라 '법'의 처지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낱말이 파헤친 책이다.

원칙에 근거한 체계적 비판

박교수는 우리나라 법이 지닌 원칙적인 문제들을 우리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켜 잘 근질근질 썩는다. 씹어서 그 속내를 보여준다. 굵직한 곳도 굵은 곳도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준다. 보여주지만 할 뿐 아니라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 치유법도 고민한다.

우리나라 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알기 쉽게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기왕에 나와 있는 법학 개론서나 이른바 '재미있는' 법률상식책과는 여러모로 다르다. 우리나라 법의 문제들을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시켰다는 것이 육법전서의 순서에 따라 갖가지 법령들을 나열한 '개론서'와 다르고, 원칙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는 우리 법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토막상식 책들과 다르다.

《법은 무죄인가》(사법은 무죄인가)로 우리나라 법과 사법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의 서두는 “법이란 무엇인가”. 상투적이기 짝이 없는 제목이지만 이 장에서 독자들이 만나는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이 어찌구 저찌구의 틀에 박힌 내용이 아니다. 97년 1월 1일 현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4.5%가 우리 사회에서는 법대로 하다가는 손해본다고 했다는 내용이 첫머리다. 이 수치는 무법천지였던 81년의 31.5%를 훨씬 능가한 수치. 이 책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만드는 자료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어떤가. 박교수는 우리나라 법을 “국가중심주의에 빠져 인권보

우리에겐 법은 무섭다 못해 더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박흥규 교수의 최근 저서는 이 안타깝고 외로운 우리나라 '법'의 처지를 애정 있는 비판의 시각으로 낱말이 파헤친다. 거침없고 간결한 문체와 명쾌한 법철학은 체증이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던져준다.

장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제한한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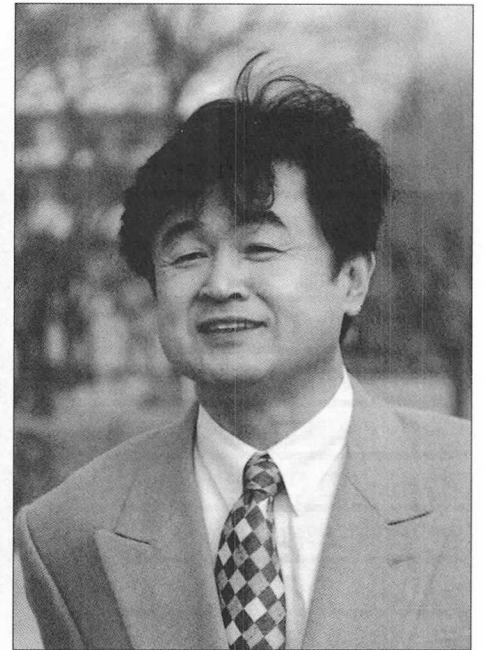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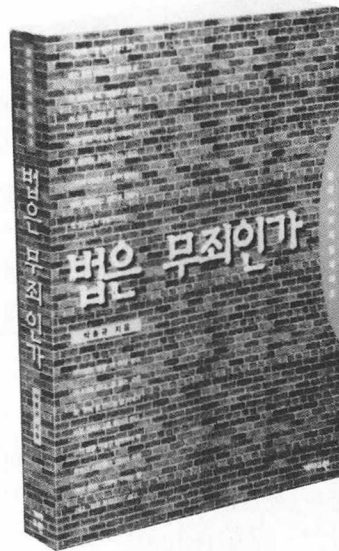
우리 법이 문제점을 지녔다고 해서 서구의 사회주의나 자유주의, 생태주의 등 어떤 법적 논의나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무리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법의 기본이념은 ‘인권’이다.

“인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법의 진정한 목적, 법과 민주주의,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림하는 법에서 봉사하는 법으로

2편에서 다룬 사법의 문제는 최근 한보사태와 관련,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가 더없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절실하게 읽히는 부분이다. 사법의 독립성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법률가의 수, 법학교육의 문제, 높은 법원 문턱과 비싼 소송비용, 형사재판의 문제점, 검찰과 교도소 행정의 문제까지 박교수는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 ‘알아야 할 이야기’ 모두를 이 책에 담았다. ‘군림하는 법에서 봉사하는 법’으로, 단순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법개혁의 최우선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게 박교수의 주장이다.

명쾌한 법철학과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우리 법을 해설하고 법과 사법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이 책은, 알기 어렵고 알고 싶지 않고 알아봐야 도움도 안돼서 법에 등 돌리고 있던 많은 독자들에게 ‘법’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게 한다. 모든 애정은



박흥규 교수.

‘삶’에서 비롯되고 애정이 바탕된 비판이야말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침없고 간결한 문체가 책장을 넘기는 속도를 더하는데, 모처럼 체증이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얻게 되는 것도 이 책을 읽는 기쁨의 하나다.

지식의 오퍼상 역할

박흥규 교수의 전공은 노동법이다. “노동법이 없었다면 법학을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두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현실과 괴리된 법학에 대한 혐오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법학보다는 삶의 진실을 밝히는 인문학에 대한 그의 절고 너른 관심을 의미한다.

박교수는 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사로 활동중이고, 노동현장에서 요청하는 강연은 멀다 않고 간다. 이런 현실인식이 바탕이 되었기에 80년대에 그가 펴낸 《노동법》(삼영각)은 교과서형식의 개론서임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독자를 가지고 있다. 최근 노동법 개악이 사회문제화됐을 때는 민주노총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비판적 현실인식이 아마도 70년 끝무렵, 김순수·염무웅·이수인·최원식 등 영남대에 등지를 틀고 있던 일군의 교수들의 술자리에 학생신분으로 끼어들어 그들의 비판적 지성의 세례를 받은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60년대 교원노조를 하다가 검거된 아버지를 면회했던 경험과 대학시절 노동야학을 했던 경험이 그를 노동법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은 ‘지성’의 역할과 ‘힘’에 있다.

“학제의 울타리에 갇혀 자료와 씨름하는 일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박교수는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지만 인류의 문화와 역사, 미래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놓는 독특한 인물들을 선호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서구의 지성인. 그는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을 우리말로 옮기고 난 뒤 본문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긴 ‘옮긴이의 말’을 썼다. 얼마전 사이드의 《권력과 지성인》이 번역됐을 때는 오역문제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서서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지식의 오퍼상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오퍼상이라면 자신이 들여온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역문제에 대해 두루뭉수리로 넘어가는 대세를 뒤엎고 꼼꼼하게 물고 늘어졌던 자신이 싸움닭처럼 비쳐졌는지 모르지만 박교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치열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번역은 앞으로도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다.

최근 들어 생태사회주의나 환경공동체에 부쩍 관심이 많이 간다는 박교수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주의》를 번역중이다. — 박남정 기자